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Malgo Hyanggiropge

only practice virtue
can only make our hearts
purified and emptied.

12 2024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움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頂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2024 / 12

시절 인연	02	행복은 나누는 것이다
법정 스님 따라 하기	07	산이나 바다 어디에도 숨을 곳은 없다
법정 스님 편지	10	자축自祝의 건件
선재동자와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	12	바산바연지주야신 婆珊婆演底主夜神 1
다시 만나는 법정 스님	16	삶의 뿌리를 내려다볼 때
다실에서 / 류시화 시인의 시	20	나의 나무
맑고 향기롭게 사는 사람들	21	맑고 향기롭게와 길상사 소식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2024년 12월 1일 발행 / 통권 358호 / 등록일 1999년 6월 23일 /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발행 편집인 덕일 / 기획 편집 홍정근

발행처 (사)맑고 향기롭게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팩스 741-4698

디자인 인쇄 디자인나경

홈페이지 <http://www.clean94.or.kr>

대표메일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을 실천하고 전파하기 위해 법정 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팩스 (02)3672-5947

홈페이지 <http://www.gilsangsa.or.kr>

대표메일 kilsangsa@hanmail.net

행복은 나누는 것이다

- 법정 스님 2000년 10월 15일 정기법문 2

나누는 것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주 지극히 사소한 일상적인 일에서 나눔은 이루어집니다. 가령 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끼어들려고 하는 차에 차로를 양보하는 일, 엘리베이터 단추를 눌러, 뒤에 오는 사람이 부딪치지 않도록 마음을 쓰는 것도 배려이고 나누는 일입니다. 또 사무실이나 어느 곳을 들어갈 때 뒤따라온 사람을 위해서 열었던 문을 잡아주는 일도 나누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몸에 배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쓰면 얼마든지 하루에도 수백 가지씩 나눌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쓰지 않고 자기밖에 모르고, 함께 사는 이웃을 의식하지 않으니 자기만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지, 조금만 마음을 열면 얼마든지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여기저기에 무수히 깔려 있습니다. 나눔이나 봉사에 어떤 보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굳이 보상이 있다면 뿌듯하고 흐뭇한 마음입니다.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그 일 자체가 그저 뿌듯하고 기쁘고 보람이 있으니 스스로 할 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길상사에는 여러 신행단체와 맑고 향기롭게 회원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 일하는 모습을 제가 볼 때마다 내 마음도 뿌듯하고 흐뭇해집니다. 그리고 고마워집니다. 좋은 일은 이웃에게 이렇게 메아리를 일으킵니다. 내가 봉사한

다고 해서 내가 나눈다고 해서 내 재능이나 몫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흐뭇하고 뿌듯한 그 마음이 복과 덕을 쌓습니다. 복과 덕은 그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웃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 내 마음이 뿌듯하고 흐뭇할 때 복과 덕이 저절로 쌓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눈앞의 이해관계에 아등바등 하지 마십시오. 긴 시야로 인간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나 자신을 이루는가, 어떤 일이 내 자신을 이루는가, 어떤 행위가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합니다.

때로는 비울 줄도 알아야 합니다. 비워야 그 자리에 새것이 들어옵니다. 비우지 않고는 새것이 들어차지 않습니다. 묵은 것만 있으면 곰팡이가 생깁니다.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나눌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문으로 하면 ‘응무소주 이생기심 應無所主 而生其心’입니다. 보리심菩提心, 착한 마음, 나누는 마음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고 이름도 명예도 집착하지 말고 기꺼이 나누어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나무꾼이었던 육조 혜능이 눈을 번쩍 뜨지 않습니까? 또 금강경에 보면 아상我相, 인상人相, 중생상衆生相, 수자상壽者相이 있으면 보살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도왔다는 생각, 이런 생각을 두면 그것은 순수하게 나누어 가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이 하는 일에 무심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의 자취 그것을 불교적인 용어로 ‘상相’이라고 합니다.

모든 생각의 자취와 상에서 벗어난 사람이 바로 부처입니다. 한문으로 하면 ‘이일체제상 즉명제불 離一切諸相 卽名諸佛’입니다.

이것도 금강경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좋은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나누어 가질 때, 내 마음이 뿌듯하고 흐뭇할 때, 그 마음이 이웃에도 메아리가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할 때도 마지못해 남의 눈치를 보면서 한다고 하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만 낭비하고, 즐겁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누어 가짐이 아닙니다.

서산 스님 말씀에 이런 법문이 있습니다.

‘가난한 이가 와서 구걸하거든 분수젓 아까워 말고 나누어 주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삶, 나와 남이 둘이 아닌 한 몸으로 생각하고 보시하라.’

집 안에 있는 걸 다 주지 말고 분수에 따라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동체대비(同體大悲)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와 남이 둘이 아닌 것을 한 몸이라고 합니다.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간사(人間事)입니다. 아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내가 단지 맡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화엄경에 보면 보살들이 보살행을 할 때,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합니다. 누가 와서 나눔을 청할 때 그 보살들은 ‘내가 일부러 찾아 나서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복과 덕을 지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는구나.’ 이렇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못해서 주게 되면 그것은 나누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이 남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고 있습니까? 내 표준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처지에서 나를 객관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종교적인 수행이란 한마디로 ‘자비의 실현’입니다. 봉사하며 나누는 일입니다. 자비심이란 무엇입니까? 실질적으로 나눌 때 자비심이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고 있습니까? 저도 요즘 와서 늘 그것을 느낍니다. ‘내가 중이 되고 나서 시주자들한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고 있는가? 내가 죽기 전에는 어떻게 하든지 이 은혜를 갚고 죽어야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뒤늦게 자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들은 이 대지와 공기와 햇볕과 바람, 나무와 물로부터 아무런 대가도 없이 무상의 은혜와 보살핌을 입어왔습니다. 우리를 낳아 길러주신 부모 형제와 스승과 친구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런 은혜에 대해 나누는 일로서 보답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도리이고 의무입니다.

20세기 말부터 지구의 위기, 인류의 위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요즘 신문이나 방송을 안 봐서 몰랐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통계로 신생아의 10% 이상이 정상아(正常兒)가 아니라는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더하다고 하는데, 이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환경호르몬의 문제로 불임(不妊)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런 여건 속에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밖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런 조건과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뿌린 씨를 우리가 거두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이것은 산모(產母) 탓만이 아닙니다. 엄마가 임신 중에 멋대로 먹고 마시고 떠들고 이래서만 된 것이 아니라, 환경 자체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식량 위기, 물과 공기의 위기, 에너지 위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활 환경과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지수화풍(地水火風), 이 모든 것이 위기입니다. 위기의 본질은 결코 모자람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나친 탐욕에 있습니다. 인류의 위기
장본인은 인간 그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너무 욕심 사나운, 아주
탐욕스러운 우리들 각자한테 있는 것입니다. 함부로 쓰는 낭비
에 위기의 본질이 있습니다. 이 지구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자정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지구 환경이 뒤죽박죽 예측할 수 없게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동안 잘못 길들인 낭비를 줄여가면서 그 위기
를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낭비를 줄이고 생각을 달리한다
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내 자신부터, 우리 집안에서부터,
우리 직장에서부터 노력해야 합니다. 하루에 한 가지라도 착한
마음으로 남을 도울 수 있다면, 즉 나누어 가질 수 있다면 그날
하루는 헛되이 살지 않고 잘 사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삶의 의미와 가치가 실리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다시 노자의 말씀을 제가 읊겠습니다.
한 구절씩 따라 하십시오.

‘하늘과 땅은 만물을 생성하고 양육하지만 자기 소유로 삼지
않고, 스스로 이룬 바 있어도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으며
온갖 것을 길러주었으면서도 아무것도 거느리지 않는다. 이것
을 일러 크나큰 덕이라 한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난 인연으로 서로가 나눔을 통해서 우리
삶이 더욱 알차고 풍요로워지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2000년 10월 15일 법정 스님이 길상사 설법전에서 하신 법문을 정리하였습
니다. 이 법문은 어떤 책으로도 출간되지 않았으며, 2회(11월호~12월호)에 걸쳐 연재
되었습니다.

2. 법정 스님 따라 하기

산이나 바다 어디에도 숨을 곳은 없다

옛날에 바라문 네 형제가 있었다. 그들은 모두 국왕의 스승으
로 다섯 가지 신통력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일주일 후면 자신
들이 죽는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서로 의논을 했다.

“우리에게는 다섯 가지 신통력이 있어 하늘과 땅을 뒤집고 해와
달을 어루만지며 산을 옮기고 강물을 흐르지 못하게 하는 등
못 하는 일이 없다. 그런데 어째서 이 죽음만은 피할 수 없단
말인가.”

한 바라문이 말했다.

“나는 큰 바닷속에 들어가 내려가지 않고 중간에 머물러 있겠다.
아무리 죽음의 살인귀라 한들 어떻게 내가 있는 곳을 알 것인가.”
또 한 바라문은 말했다.

“나는 수미산(히말라야) 속에 들어가 그 표면을 합쳐 틈이 모이
지 않게 하련다. 아무리 죽음의 살인귀라도 내가 있는 곳은 모를
거다.”

한 바라문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허공으로 높이 올라가 거기에 숨어 있어야지. 죽음의
살인귀라도 어쩔 수 없을 거야.”

또 다른 바라문은 말했다.

“나는 큰 시장 한가운데에 숨어야겠다. 죽음의 살인귀가 와서
한 사람을 붙들 때 하필 나를 찾을 리는 없겠지.”

이와 같이 그들은 저마다 숨을 곳을 말하고 나서 왕에게 하직을 고했다.

“우리들의 수명을 헤아려 보니 앞으로 이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피하려고 각자 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죽음에서 벗어난 뒤 돌아와 뵈겠으니 왕께서는 부디 덕으로써 나라를 다스리십시오.”

그들은 왕궁을 떠나 저마다 자기가 숨을 곳으로 갔다. 그러나 이레째가 되자 그들은 모두 죽고 말았다. 그것은 마치 과일 익어 제 풀에 떨어지는 것과 같았다. 시장 감독이 왕에게 아뢰었다.

“어떤 바라문이 시장 한 가운데서 갑자기 죽었습니다.”

왕은 그가 스승인 바라문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네 사람이 죽음을 피해 각자 다른 곳으로 떠났는데, 벌써 한 사람이 죽었도다. 그 나머지 세 사람들도 어찌 죽음을 면할 수 있겠는가.”

왕은 곧 수레를 준비해 부처님께 나아가 절을 올리고 말씀드렸다.

“바라문 네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섯 가지 신통력이 있어 자기들의 목숨이 이레 뒤면 다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저마다 죽음을 피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과연 죽음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람으로서는 면할 수 없는 네 가지 일이 있소. 첫째는 중음(中陰)으로 있으면서 생을 받지 않을 수 없고, 둘째는 한번 태어났으면 늙지 않을 수 없으며, 셋째는 늙어서는 병들지 않을 수 없고, 넷째는 이미 병들었으면 죽지 않을 수 없소.”

부처님은 다시 계송으로 말씀하셨다.

허공도 아니고 바닷속도 아니어나
산속도 아니고 바위틈도 아니어나
죽음을 벗어나 은신할 곳
그 아무 데도 있을 수 없네

이것은 힘써야 할 일 내가 할 일
나는 이 일을 성취해야 한다고
사람들은 그 때문에 초조히 오가면서
늙고 죽음의 근심을 밟고 다니네

이런 줄 알아 스스로 고요하고
생사가 이미 끝났음을 안다면
그는 악마의 손에서 벗어난 것
비로소 생사의 강을 건너게 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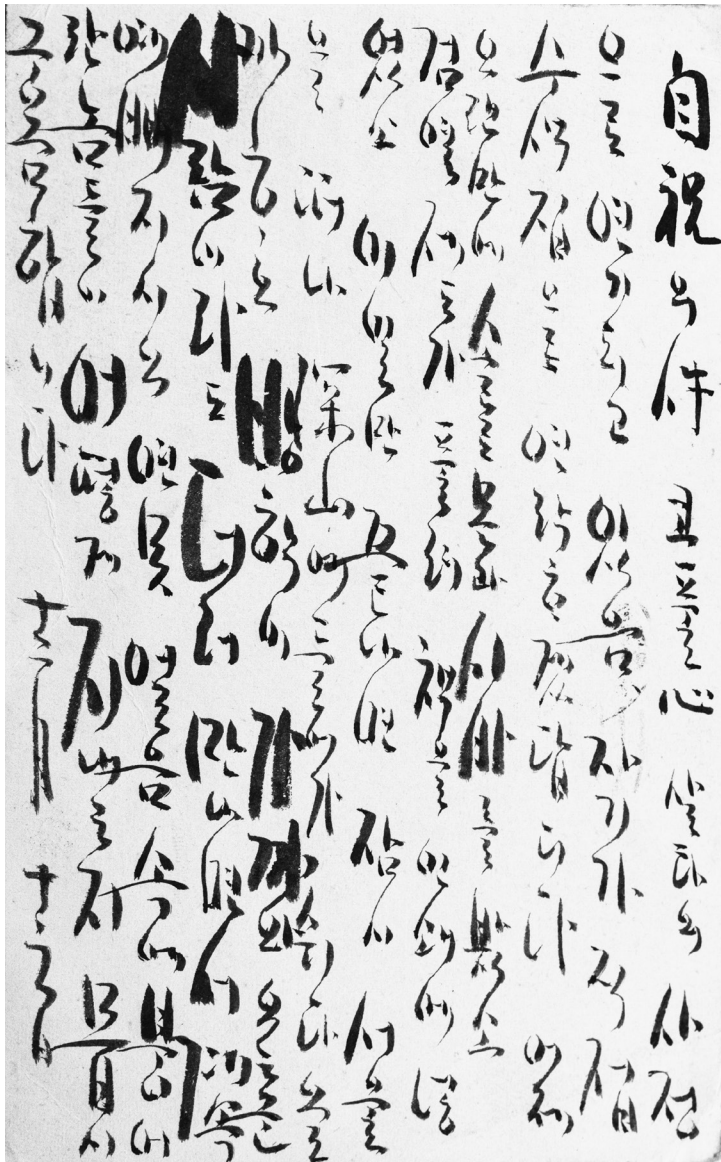
〈법구비유경〉 무상품

*법정 스님 강론

무상(無常)이라는 말은 단순히 덧없고 허무하다는 뜻이 아니다. 모든 존재는 생겨나고 없어지고 변화하면서 잠시도 같은 상태로 머물지 않음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무상이라는 말의 본뜻은 변한다는 것이다. 모든 것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오히려 큰일이 벌어질 것이다.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능성이 있다. 변하기 때문에 창조적이고 의지적이고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얼마든지 고쳐 나갈 수 있다. 육신의 무상함을 알고 침울 해할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날마다 거듭나면서 후회 없이 알차게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유기체인 육신은 영원하지 않지만, 법신(法身)은 무상하지 않고 늘 살아 있으므로 청정한 법신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중음’이란 ‘중유(中有)’라고도 하는데, 의식을 지닌 중생(衆生)이 죽음의 순간(死有)부터 다음 생을 받을 때(生有)까지의 중간 시기를 말한다. 이 기간이 49일이라는 설이 있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죽은 사람을 위해 49일 동안 명복을 빌고 재(齋)를 지내는 풍습이 생겼다.

3. 법정 스님 편지



자축自祝의 건件 코풀심心 살타의 사정으로
연기되고 있음.

자기가 직접 수색 집으로 연락하겠습니다.

어제 오랜만에 솔로몬과 시바를 봤소.

검열 제도가 풀려 책을 인쇄에 넣었소.

이 일만 끝나면 잠시 서울을 떠나

공산窟山에 들어가 쉬다 올까 하오.

방학이 가까와 오는군.

사람이라도 더러 만나면서 세속에 빠지시오.

연못 얼음 속에 봉어란 놈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12월 16일

* 이 편지는 법정 스님이 1973년 12월 16일 송정숙 님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바산바연지주야신 婆珊婆演底主夜神 1

선재동자는 지극한 마음으로 안주 지신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보살의 깨뜨릴 수 없는 지장智藏 해탈을 기억하면서 그 삼매를 닦았다. 그 구법을 배우고, 유희를 살피고, 미묘함에 들어가고 지혜를 얻고, 평등을 통달하고, 가없음을 알고 그 깊이를 헤아리면서 점점 나아가 그 성에 이르렀다. 동문으로 들어가 잠깐 서 있는 동안에 해가 문득 기울자, 마음으로 보살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그 주야신을 보려고 했다. 선지식이 여래와 같다는 생각을 냈으며, 또 이와 같이 생각했다.

‘선지식으로 말미암아 두루 보는 눈을 얻어 시방十方의 경계를 널리 볼 수 있고, 선지식으로 말미암아 광대한 지혜를 얻어 모든 반연을 널리 통달할 수 있고, 선지식으로 말미암아 삼매의 눈을 얻어 모든 법문을 널리 관찰할 수 있고, 선지식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눈을 얻어 시방세계를 밝게 비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생각하다가 그 주야신이 허공에 있는 보배 누각 향연화장香蓮花藏 사자좌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몸은 금빛이고 눈과 머리카락은 검푸르며, 용모가 단정해 보는 이마다 즐거워했다. 보배 영락으로 몸을 치장하고 붉은 옷을 입고 범천관을 썼으며, 별들이 몸에서 반짝거렸다. 터럭마다 갖가지로 가르치는 방편을 내보이는데,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법을 말하기도 했다. 성문승聲聞乘의 도를 나타내기도 하고, 보살의 행, 보살

의 용맹, 보살의 삼매, 보살의 자재自在, 보살의 주처住處, 보살의 관찰, 보살의 사자빈신師子頻神, 보살의 해탈 유희를 나타내기도 하는 등 갖가지로 중생을 성숙케 했다.

선재동자는 이런 일을 보고 듣고 아주 기뻐서 땅에 엎드려 주야신에게 절을 하고 합장하고 서서 말했다.

“성자시여, 저는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받했습니다. 저는 선지식을 의지해 여래의 공덕과 법장法藏을 보호하려고 하오니, 저에게 일체지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소서, 그 길로 나아가 열 가지 힘의 경지에 이르고자 합니다.”

주야신이 선재에게 말했다.

“착하다, 선남자여. 그대는 깊은 마음으로 선지식을 공경해 그 말을 기꺼이 듣고 가르치는 대로 수행하니, 이 같은 수행으로 말미암아 위없는 보리를 얻게 될 것이다. 나는 보살의 모든 중생의 어리석음을 깨뜨리는 법광명 해탈을 얻었다. 나쁜 피를 가진 중생에게는 대자심大慈心을 일으키고, 착하지 못한 업을 짓는 중생에게는 대비심大悲心을 일으키고, 착한 업을 짓는 중생에게는 기뻐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선악을 함께 행하는 중생에게는 둘이 아닌 마음不二心을 일으킨다. 잡되고 물든 중생에게는 청정함을 내게 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용렬한 알음알이를 가진 중생에게는 큰 이해를 내게 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승二乘의 길에 머무는 중생에게는 일체지에 머물게 하는 마음을 일으킨다.

선남자여, 나는 이런 해탈을 얻었으므로 항상 이와 같은 마음과 서로 어울리느니라. 밤이 깊고 인적이 드물어 귀신과 도둑과 못된 중생들이 쏘다닐 때, 또한 구름이 끼고 안개가 자욱하고 태풍이 불고 폭우가 쏟아지고 해와 달과 별빛이 어두워 지척을 분간하지 못할 때, 중생 중에 바다나 물이나 숲속이나 광야

나 험난한 곳에서 도둑을 만나거나 양식이 떨어졌거나 방향을 모르고 길을 잃거나 해서 놀라고 겁에 질려 벗어나지 못하는 이가 있으면 나는 여러 방편으로 그들을 구제한다.

바다에서 해매는 이를 위해서는 뱃사공이 되고 해신海神이 되어 폭풍우가 멎고 파도가 가라앉게 한다. 그리고는 길을 인도해 섬이나 기슭을 보여주어 두려움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하고, ‘이 선근을 중생에게 회향해 모든 괴로움을 여의게 해지이다’ 하고 염원한다.

물에 다니는 중생들이 어두운 밤에 무서운 일을 당했을 때는 해와 달 또는 별이나 새벽노을이나 저녁 번개 등 갖가지 광명이 되기도 하고, 또는 집이 되거나 여러 사람이 되기도 해 공포의 액난을 면하게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염원한다.

‘이 선근을 중생에게 회향해 모든 번뇌의 어둠을 멸해지이다.’ 중생들이 목숨을 아끼거나 명예에 집착하거나 재물을 탐하거나 벼슬을 소중히 여기거나 이성異性에게 애착하거나 처첩妻妾을 그리워하는 등, 구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고 근심 걱정하면 내가 모두 구제해 고통을 여의게 한다. 험난한 산중에서 조난을 당한 이에게는 착한 신장으로 나타나 가까이하기도 하고, 좋은 새가 되어 아름다운 소리로 위로하기도 하고, 신기한 약초가 되어 빛을 놓아 비춰주기도 하고, 과일나무를 보여주고, 맑은 샘을 보여주고, 지름길을 보여주고, 평탄한 곳을 보여주어 모든 재난을 면하게 한다.

거친 벌판이나 울창한 숲속이나 험한 길을 다니다가 덩굴에 얽히거나 안개에 싸여 두려워하는 이에게는 바른 길을 보여 벗어나게 하고, 이렇게 염원한다.

‘원컨대 중생들이 샷된 소견의 숲을 베고 애욕의 그물을 찢으며 생사의 광야에서 뛰쳐나오고 번뇌의 어둠을 멸하며, 온갖

지혜의 평탄한 길에 들어서서 공포가 없는 곳에 이르러 끝까지 안락해지이다.’

또 중생 가운데 국토에 애착해 걱정하는 이에게는 방편을 베풀어 염증을 내게 하고, 그들을 위해 이렇게 염원한다.

‘모든 중생들이 오온五蘊에 애착하지 말고 모두 부처님의 일체지의 경지에 머물게 해지이다.’

중생 가운데 자기 동네에 애착하고 집에 탐착하느라 항상 어둠 속에서 괴로움을 받고 있는 이에게는 법을 말해, 그가 거기에 싫증을 내고 법에 만족하며 법에 의지해 머물게 하고 이렇게 염원한다.

‘모든 중생이 여섯 군데 마을에 탐착하지 말고 생사의 경계에서 빨리 벗어나 끝까지 온갖 지혜의 성에 머물러지이다.’

어떤 중생이 어두운 밤길을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 고생을 하면, 나는 방편으로 광명을 비춘다. 나가려고 하는 이에게는 문을 열어 주고, 다니려는 이에게는 길을 알려 주고, 시냇물을 건너려는 이에게는 다리를 보여 주고, 강을 건너려는 이에게는 배를 주고, 갈 곳을 살피는 이에게는 험하고 평탄함과 위험하고 안전한 곳을 일러주고, 쉬어 가려는 이에게는 도시와 마을과 물과 숲을 알려 주고, 이렇게 염원한다.

‘내가 여기서 어둠을 밝혀 세상사를 편하게 하듯이, 지혜의 광명으로 모든 중생에게 생사의 어두운 밤과 무명의 캄캄한 곳을 두루 비추게 해지이다.’

- 바산바연지주야신을 찾아 가르침을 듣는 선재동자의 간절한 구도 이야기는 3회로 나누어 계속 이어집니다.

삶의 뿌리를 내려다볼 때

열흘 남짓 산거(山居)를 비우고 떠돌아다니다 돌아오니 가을빛이 기울고 있었다. 집 뒤는 단풍이 들었다가 이슬기 시작하고 앞산 마루에는 벌써 나목(裸木)들이 드러나 있다. 세월은 우리가 헛눈을 파는 사이에도 강물처럼 쉬지 않고 흘러간다.

채소밭에는 무와 배추, 그리고 갓이 그새 실하게 자라올랐다. 무는 허연 종아리를 무릎 위까지 드러냈고, 배추는 속이 많이 찼다. 이 채소밭을 내려다볼 때 나는 좀 부끄러워진다. 김장밭을 갈아 떡잎이 자라오를 만하면 꿩들이 내려와 심술을 부리듯이 해집어놓은 바람에 해마다 어지간히 속이 상하곤 했다. 그리고 밤으로는 산토끼들이 와서 김장밭을 망쳐놓기 일쑤였다. 언젠가 산 너머 농막에 가봤더니 채소밭 둘레에 철망을 쳐놓았었다. 옳지, 나도 철망을 사다가 쳐놓으면 되겠구나! 속으로 새겨 두었다. 지난 가을 광주에 나가 철물점에서 철망을 사다 쳐두었다. 50미터 한 말이에 만 원이래서 사왔는데, 펼쳐보니 20미터밖에 되지 않았다. 이래저래 농사는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 장에서 사다 먹는 편이 경제적으로 따지면 훨씬 이익이다. 하지만 가꾸는 재미는 돈으로 셈할 수 없으니 값비싼 농사를 짓는다.

그 전 같으면 김장밭이 볼품이 없었을 텐데 올해는 철망 덕분에 제대로 된 것 같다. 철망 밖에 갈아놓은 아욱 한 두렁은 밤마다 토끼가 와서 질서정연하게 차곡차곡 모조리 뜯어먹었다. 그야말로

로 씨도 남기지 않고 깡그리 먹어 치운 것이다. 그것만으로는 모자랐음인지 모란밭 곁에 갈아놓은 케일까지 입을 대기 시작했었다. 큰절에서 농감이 올라와 말하기를, 밤에 라디오를 켜놓으면 짐승들이 오지 않는다고 했다. 그 말대로 라디오를 켜놓고 지켜보았더니, 첫날밤은 왔다가 그대로 가버렸다. 둘째 날 밤은 공연한 소리임을 알았음인지 뜯어먹고 간 흔적을 이튿날 아침에 알 수 있었다.

채소를 가지고 짐승과 다투는 내 자신을 돌아보니, 사람으로서 자존심이 상하려고 했다. 예라, 먹으면 먹었지 채소 좀 가지고 영악스런 사람이 되어서야 쓰겠느냐 싶어 생각을 거두어들었다. 짐승도 염치가 있었던지 그 뒤로는 별로 입을 대려고 하지 않았다. 염치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이지, 사람처럼 염치없는 동물이 또 어디 있을까. 적어도 요즘 세상에서 사람에게 예의 염치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만큼 이 시대의 우리 모두가 안면 신경이 무디어진 것인가.

높이 두 자밖에 안 된 울타리를 토끼나 꿩이 마음만 내면 얼마든지 뛰어넘고 날아들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은, 그들이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그들 나름의 질서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사람들은, 물론 일부에 국한된 일이긴 하지만, 몇 길이나 되는 남의 집 담장을 뛰어넘고 잠가놓은 자물쇠도 부숴가면서 도둑질을 한다. 어디 그뿐인가. 도둑을 보고 강도라고 했다고 해서, 돌아서다 말고 ‘내가 절도지 어디 강도냐?’고 도둑이 도리어 대들면서 큰소리까지 치는 세태가 아닌가.

하기야 자기 분수도 모르는 큰 도둑들이 남의 자리에 버젓이 걸터앉아서 큰소리치는 세상이니, 좀도둑들이 하는 것쯤은 애교로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말은 사회 정의가 어떻고 하여 떠들어대지만, 우리 사회 일각에는 아직도 부정부패와

지능적인 비리가 활개를 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줌도둑들이 성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얼마 전 산소통까지 메고 들어가 은행 금고를 털려고 하다가 시간이 모자라 그만 중단하고 나오면서, 장내를 어질러놓아 미안하다는 쪽지를 남겼다는 도둑의 기사를 읽었다. 그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 도둑들에게서 한 가닥 예의와 염치와 그리고 여유를 엿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옛날의 우리 조상들은 땅에다 금만 그어놓아도, 혹은 새끼줄만 둘러쳐 놓아도 침해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그 후손인 현대인들은 두꺼운 벽도 깨뜨려가면서 자기 것 가져가듯 버젓이 도둑질을 한다. 두 자밖에 안 된 울타리의 질서를 지킬 줄 아는 토끼나 꿩 같은 들짐승에게 오늘의 우리는 앞드려 배워야 할 것 같다.

빈집에 돌아오면 누가 반겨주는가. 내 암자에서는 새와 나무들이 나를 반가이 맞아준다. 한동안 보이지 않아 궁금했음인지 암자 둘레에 사는 새들은 내가 들어서면 뭐라고 재잘거리면서 내 둘레를 폴폴 날아다닌다. 기와지붕 틈에서도 짹짹거리며 아는 체를 한다. 날짐승들도 같이 들면 서로를 알아보는 모양이다.

그리고 나처럼 제멋대로 자란 청청한 나무들이 나를 반겨준다. ‘나처럼 제멋대로 자랐다’는 표현은 얼마 전에 나를 따라와 뜰의 나무들을 가지치기해주고 간 운문사의 학인 혜만의 말이다. 향나무건 후박나무건 전혀 손질을 안 해주었기 때문에 제멋대로 자란 것이다.

한 그루 한 그루 내 손수 심어서 가꾼 나무들이므로 나무라 할지라도 유정有情이 된 것. 유정이건 무정無情이건 모두 불성佛性이 있다는 말도 있지만, 곁에서 지켜보고 쓰다듬고 보살펴준 인연으로 해서 우리는 정이 든 것이다.

나 같으면 아까워서 손도 못 댈 가지들을 헤만이는 나무를 위해서라면 싹둑싹둑 잘라내었다. 곁에서 보고 있을 때는 내 팔 한쪽이 잘려 나가는 것처럼 아프기까지 했는데, 가지치기를 마치고 보니 수형樹型이 제대로 잡히고 가지가 덜 뺄뺄해서 보기에도 그 전보다 나아졌다.

이번에 뜰에 서 있는 나무 중에서 편백과 툇감나무와 후박 한그루는 베어내었다. 기른 정으로 보면 차마 못 할 일이었지만, 뜰의 공간을 위해 하는 수 없이 정원사의 뜻에 따르기로 했다. 나무도 제 설자리에 들어서지 못하면 저렇듯 베어지는구나 싶었다. 아래 채 앞이 그전에는 웬지 좀 답답했는데, 이번에 편백 세 그루를 없애고 보니 환칠하게 트여 잔디밭이 훨씬 넓어졌다.

나무의 가지치기 일을 지켜보면서, 우리들의 복잡한 일상생활에서도 불필요한 결가지는 미련 없이 잘라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얽히고설킨 결가지 때문에 삶의 줄기가 제대로 펼쳐질 수 없다면 한때의 아픔을 이기고서라도 용단을 내려 절단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주관적인 틀에 박힌 고정관념부터 잘라내야 한다. 자신의 삶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비춰보지 않고서는 전체의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어디에 걸려서 앓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 오늘의 삶이 어제의 삶보다 가치를 부여할 만한 것인지도 스스로 물어보아야 한다.

후박잎이 어지럽게 널려 있다. 은행잎도 자기 발치에 수북이 누워 있다. 꽃하고는 또 다른 아름다움을 지닌 뽕나무 잎새도 어제까지 내려다보던 그 발부리에 쌓여 있다. 낙엽귀근落葉歸根, 잎이 지면 뿌리로 돌아간다. 어느새 12월, 하루 한때라도 자기 삶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야 할 계절 앞에 또 마주섰다. 1985

나의 나무

나에게 나무가 하나 있다
 그 나무는 안으로 잎을 피운다
 밤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폭풍이 세상의 나무들을 흔들어도
 아무 잎도 남지 않게 되어도
 그 나무가 안으로 피운 잎은
 스무 날쯤은 더 푸르다

내 안에 나무가 하나 있다
 안으로 가지를 내어
 희망의 높이에서 잎을 틔우는 나무가
 그 잎들 사이로 일렁이는 햇살을
 지금 이 순간에만 볼 수 있는 나무가
 때가 되어 잎이 모두 떨어진다 해도
 바람을 미워하지 않는 나의 나무가

 **중앙모임** (02-741-4696)

■ 2025년 탁상달력 우편 발송 안내

(사)맑고 향기롭게는 10월 말을 기준으로 연간 최소 3만 원 이상 후원해 주신 회원님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2025년 탁상달력을 11월 27일 우편 발송해 드렸습니다. 아파트 우편함에는 분실되는 일이 간혹 있으므로, 12월 10일 까지 받지 못하는 분께서는 사무국으로 문의해주세요. 그리고 후원회원 중에서 개인적인 이유로 우편물 수신을 거부하여, 탁상달력을 받지 못한 분께서도 사무국으로 전화 주시면 확인 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12월 말일 중에 3만 원 이상 후원하신 분께는 2025년 1월 중순에 따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길상사 벽달력이 필요하신 분은 길상사 창건 27주년 기념 법회일(12월 15일)부터 길상사 중무실에서 나눠드리므로, 길상사에 방문하여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편 발송은 불가합니다.)

■ 맑고 향기롭게 연말 김장 나눔 함께해요.

- **일정** : 12월 5일(목) 오전 9시 ~ 오후 4시
- **장소** : 맑고 향기롭게 반찬 나눔 조리장
- **나눔 대상자** : 반찬 나눔 대상 460 가구 및 지역 노인정, 공부방 나눔
- **참여 대상** : 맑고 향기롭게 회원, 길상사 신도, 개인 봉사자
- **준비물** : 앞치마, 면장갑, 고무장갑, 일하기 편하고 따뜻한 복장
- **활동 내용** : 배춧속 양념 넣기, 포장 작업
- 오전 7시에 배추 하차 도움 주실 남자 봉사자 일손이 필요합니다.
- 봉사 참여를 미리 접수해 주시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당일 김장 관계로 길상사 주차장 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후원금 소득공제 및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한 해 동안 후원해 주신 소중한 후원금에 대해 소득공제 및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해 안내하오니, 꼭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부금 영수증은 2025년 1월 중순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 기부금 영수증을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어려운 분은 사무국으로 전화 (02.741-4696) 또는 홈페이지 1:1문의, 이메일(clean94@hanmail.net)로 신청해 주시면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 본회 설립 목적상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종교 법인으로 인가(기부금 코드 41번) 되어 소득 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부금 영수증을 정확하게 발급받기 위해서는 후원자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사무국에 등록된 내역과 일치해야 하므로,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연락해 주세요. 익명으로 후원하신 경우 후원 내역이 불일치할 수 있으니, 문의 사항이 있으면 사무국으로 전화해 주세요. (02.741-4696/총무팀)
- 사정상 기부금 영수증 발급자 정보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2025년 1월 7일 전까지 사무국으로 연락해 주셔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 활동 : 2일(월)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책 읽기 모임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향기 우체부 소모임 : 격주 금요일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서울노인복지센터 급식 자원 활동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 만발식당
- 연말 김장 나눔 : 12월 5일(목) 오전 9시 ~ 오후 4시
- 뜨개질 소모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세계일화실 / 비대면 활동

■ 연말 재정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 스님 학교 후원

대 구 모 임 (053-753-8883)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심리치료, 상담, 정서지원 운영 :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사각지대(아동, 청소년, 홀로어르신) 반찬 지원 활동 :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 경로 급식 및 웃음치료 : 매월 마지막 토요일 오전 9시
 - 성폭력 피해 청소년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 청도 운문사 봉사활동 : 매월 셋째 월요일 오전 8시30분 집결후 이동
 - 저소득층 자활, 중독자 지원 / 보호시설종료(자립준비) 청소년·청년 지원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무소유 기행 / 아나바다 공유 사업 비정기 진행
- 난치병 환우 돕기를 위한 복합문화공간 ‘함께’ 운영(2층)
 - 셀프 카페, 셀프 밥상, 공간 대여
- 법정 스님 문화관 운영(5층)
- 각종 자원봉사 활동(1365 등록 기관)

경 남 모 임 (055-266-0170)

- 보현행원(무료 노인 요양원) :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 봉사 / 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 사파복지회관 무료 급식소 :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 점심 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 / 오전 10시~오후 2시
- 해 뜨는 교실(봉림청소년문화의집) : 저소득층 초·중·고·대학 공부방에 학습 지도 및 간식 지원
- 결연 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밑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 / 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 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광 주 모 임 (062-236-3129)

- 점심 공양 나눔 : 매주 월요일~금요일 / 고령자, 저소득,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천 원의 밥상(점심) 운영 / 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 김치 담그기 : 매주 토요일 진행
- 자비의 도시락 나눔 : 매주 월요일~금요일 / 저소득 가정에 도시락 나눔
- 장터 및 바자회, 쓰레기 줍기 캠페인 : 비정기적으로 회원 및 봉사자들 참여 진행
- 독서, 노래 모임 : 법정 스님 저서 읽고 회원들과 교류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02-3672-5945)

음력 11월 초하루 기도

- 일시 : 12월 1일(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천수다라니 33독송 기도

- 일시 : 12월 7일(토) 오후 6시 ~ 8시30분
- 장소 : 극락전
- 한 가지 소원의 성취를 일념으로 발원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면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 원하는 바가 속속성취되는 영험한 기도가 천수다라니 기도입니다.
- 개인 축원입니다.
-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보름기도

- 일시 : 12월 15일(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지장재일

- 일시 : 12월 18일(수) 오전 9시 50분
- 장소 : 지장전

동지 기도

- 일시 : 12월 21일(토)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관음재일

- 일시 : 12월 24일(화)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매달 관음재일에는 인등 접수자 축원이 있습니다.

음력 12월 초하루 기도

- 일시 : 12월 31일(화)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마가스님 열려라 참깨영상

‘참 나를 깨우는 명상’

- 일시 : 매월 둘째주 토요일 14:00~16:00 / 설법전
- 동참금 : 회당 1만원
- 접수 : 템플스테이 홈페이지

주지스님과 함께하는 대만 불광사 순례 5일

- 일시 : 12월 16일 ~ 12월 20일

길상사 창건 27주년 기념 법회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가 삼각산 자락에 향 사르며 첫 목탁을 울리던 날은 1997년 12월 14일입니다. 벌써 27년전입니다. 길상사를 아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길상사는 창건 기념 법회를 창건일에 가까운 일요일 12월 15일 극락전에서 오전 9시 50분부터 봉행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길상사의 창건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정 : 12월 15일(일)
- 시 간 : 오전 9시 50분
- 장 소 : 극락전

(사)맑고 향기롭게 후원 안내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회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신용카드 후원 나이스페이먼츠 시스템을 통해 후원자님의 신용카드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회로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후원 방법을 신용카드 후원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직접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회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여 직접 은행에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 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한 은행에 직접 가야 합니다.

지로 후원 지로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지로 번호 7618372)

일시 후원 뜻깊은 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회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지를 받아 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할 때, 직접 본회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정기 후원 · 회원가입

본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후원회원 가입 절차에 따라 각 지부를 선택하여 후원 등록하거나, 각 지부 사무국에 방문하여 가입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각 지역 모임 후원 계좌

*중앙모임 02-741-4696

일반 사업 후원 계좌 : 국민 817-01-0253-129
하나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결식 이웃 후원 계좌 : 국민 817-01-0255-458
신한 100-013-787953
장학금 후원 계좌 : 하나 220-890015-10204

*대구모임 053-753-8883 후원 계좌 : 대구 002-05-016277-8

*경남모임 055-266-0170 후원 계좌 : 농협 932-01-002933

*광주모임 062-236-3129 후원 계좌 :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는 종교 법인으로 인가되어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